https://doi.org/10.5392/JKCA.2018.18.09.209

사회적 책임활동과 원가형태에 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nagers' Decision Making about Cost Behavior

이창섭*, 우소희**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우송대학교 앤디컷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Chang Seop Rhee(crhee2@sejong.ac.kr)*, Sohee Woo(sshwoo@wsu.ac.kr)**

요약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기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원가감소율이 매출증가에 따른 원가증가율보다 낮게 관찰되는 비대칭적인 원가행태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CSR을 수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하방경직성인 원가행태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CSR을 수행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보다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이 CSR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련된 자원투입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자의 원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기업의 CSR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사회적 책임활동 | 판매관리비 | 하방경직성 | 원가행태 | 경영자 의사결정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SR) on cost stickiness. The asymmetrical cost behavior in which the cost reduction rate of a company is lower than the cost increase rate of an increase in sales is called cost stickiness. In this study, we separated the companies with CSR and those without CSR, and then compared their cost behaviors.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st stickiness of the companies performing the CSR is stronger than the companies that did not. This means that the company needs ongoing investments to create value through the CSR, so it is difficult to reduce committed resources involved immediately when sales declines.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sight to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firms' CSR can affect the managers' costs decisions.

■ keyword :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 Cost Stickiness | Cost Behavior | Managers' Decision Making |

* 본 연구는 2018년도 우송대학교 연구과제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7월 06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29일
교신저자 : 우소희, e-mail : sshwoo@wsu.ac.kr

Ⅰ. 서 론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Noreen(1991)에서는 기업의 활동수준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대칭적으로 증감한다는 전통적인 원가행태를 설명하였다[1]. 그러나 현실에서의 원가행태는 기업의 활동수준에 따라 대칭적인 원가행태가 아닌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관찰되며, 이는 기업의 활동수준의 증가에 따른 원가증가율보다 활동수준의 감소에 따른 원가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활동수준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에 기업의 활동수준이 감소하면 경영자는 이에 상응하는 자원을 절감하기 전에 조정비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2][3]. 즉, 경영자가 매출액 감소 시 유휴자원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의사결정에 따라 원가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CSR은 과거 단순히 사회에 희생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CSR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장기적인 우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두 견해 모두 기업의 CSR에 대한 비용은 경영자가 장기적인 기업운영계획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은 가치창출을 위해 장기적인 CSR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투입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CSR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CSR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욱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CSR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투입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련된 원가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CSR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CSR과 기업가치를 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경영자의 원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CSR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학계와 자본시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1.1 하방경직성

경영자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가를 고려해야하며, 기업의 원가행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원가의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원가는 매출액에 따라 대칭적으로 증감한다고 가정하였다[1]. [그림 1]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었던 전통적인 원가모형을 나타낸 것이다[6][7]. [그림 1]에서 X축의 활동수준인 매출변화율은 양(+)일 때와 음(-)일 때의 기울기가 동일한 대칭적인 행태를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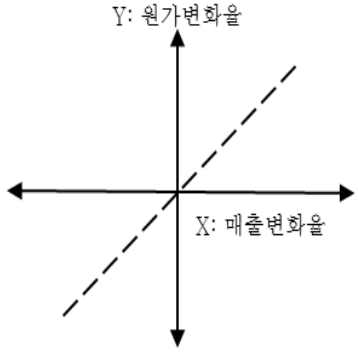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적인 원가모형[6][7]

반면, Anderson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실제 기업의 원가행태가 [그림 2]와 같이 X축의 활동수준인 매출변화율이 양(+)일 때의 기울기와 매출변화율이 음(-)일 때의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원가행태가 관찰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2]. [그림 2]에서 X축의 활동수준인 매출변화율이 양(+)일 때보다 음(-)일 때 기울기가 보다 원만한 형태를 띄고 있다[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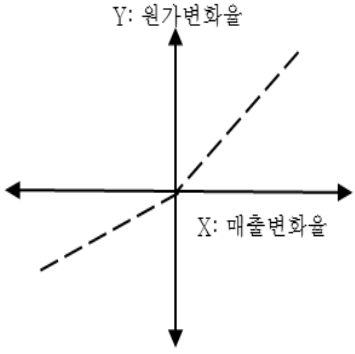

그림 2. 비대칭적인 원가모형 (원가의 하방경직성)[6][7]

이러한 비대칭적인 원가행태를 원가의 하방경직성이라고 부르며, Anderson *et al.*(2003)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에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원을 절감하기 이전에 조정비용을 고려함으로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2]. 즉, 경영자는 매출액 감소 시 유휴자원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의사결정에 따라 원가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발생 원인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라고 판단하여,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기업지배구조로서 이사회규모, 사외이사비율,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어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줄어들었음이 보고되었다[8-10].

한편, 구정호(2011)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0보다 약간 큰 상향이익조정의 유인을 갖는 경영자는 적자를 회피하고자 매출액 감소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하방탄력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11]. 원가의 하방탄력성은 하방경직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매출액 상승 시 원가증가율보다 매출액 하락 시 원가감소율이 보다 높아지는 행태를 의미한다.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기업의 CSR은 과거에는 주로 지역사회공헌이나 환경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기업의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2][13]. 이러한 기업의 CSR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14-17].

우선, 기업의 CSR은 단기적으로는 CSR을 수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창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견해이다[14][15]. 즉, 기업이 CSR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소비자와 거래처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명성을 높이고 규제압력도 낮출 수 있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기업의 CSR은 경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16][17]. 즉,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지나친 CSR을 수행하는 경우 과도한 사회적 책임활동 비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함으로서 기업의 재무성과가 저해될 것이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CSR연구에서는 대부분 기업의 CSR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김용성 등(2010)은 경제정의지수 중 사회적 측면의 점수가 높을수록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으며[18], 이윤상(2011)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19]. 최현정과 문두철(2013)에서는 국내기업의 CSR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행위가 적으며, 이익지속성은 높다고 설명하였다[20].

이와 같이 기업의 CSR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에 따른 기업의 원가행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경영자의 CSR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업의 원가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설설정

매출액 증감에 따른 원가행태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 전통적인 원가모형과 달리, 경영자의 조정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비대칭적인 원가행태가 발생한다[2].

Habib and Hasan(2016)의 연구에서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로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에 대한 자원을 배분한다고 주장하였다[18]. 이들 연구에 따르면,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CSR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이들 기업은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더라도 즉각적으로 CSR에 관련된 자원투입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CSR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CSR을 위한 자원투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정비용을 덜 줄이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CSR 변수의 측정

국내 대부분의 CSR에 관한 연구는 경제정의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의지수(KEJI 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CSR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EJI지수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지수는 2011년부터 평가방법이 변경됨으로서 본 연구기간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2. 실증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Anderson *et al.*(2003)의 원가의 하방경직성 모형에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 (1)을 설정하였다[2].

$$\triangle SGA_{i,t} = \beta_0 + \beta_1 \triangle Sales_{i,t} + \beta_2 \triangle Sales_{i,t}*DD + \beta_3 \triangle Sales_{i,t}*DD*CSR_{i,t} + \beta_4 \triangle Sales_{i,t}*DD*Size_{i,t} + \beta_5 \triangle Sales_{i,t}*DD*Assets_{i,t} + \beta_6 \triangle Sales_{i,t}*DD*Lev_{i,t} + \beta_7 \triangle Sales_{i,t}*DD*ROA_{i,t} + \beta_8 \triangle Sales_{i,t}*DD*Big_{i,t} + \beta_9 \triangle Sales_{i,t}*DD*Grow_{i,t} + YD + ID + \varepsilon \quad (1)$$

여기서,

$\triangle SGA_{i,t}$	= i기업의 t기 작년대비 판매관리비 변화율
$\triangle Sales_{i,t}$	= i기업의 t기 작년대비 매출액 변화율
$CSR_{i,t}$	= t기 CSR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1인 더미변수
DD	= 작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면 1인 더미변수
$Size_{i,t}$	= i기업의 t기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Assets_{i,t}$	= i기업의 t기 자산집중도(총자산/총매출)
$Lev_{i,t}$	= i기업의 t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	= i기업의 t기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Big_{i,t}$	= i기업의 t기 대형회계법인인 경우 1인 더미변수
$Grow_{i,t}$	= i기업의 t기 국가경제성장률
YD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위 연구모형에서 β_1은 매출액이 1만큼 증가할 때 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며, $\beta_1+\beta_2$는 매출액이 1만큼 감소할 때 판매관리비의 감소율이다. 즉, 원가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β_2가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면 원가는 하방탄력적인 행태를 띄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면 원가는 하방경직적인 행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SR기업에서 하방경직적인 원가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β_3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통제변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원가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연구모형 1]에 포함시켰다.

3. 표본선정

기업의 CSR이 판매관리비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표본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KOSPI 기업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을 선택하였다.

(1) 금융업과 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2)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3) KisValue와 TS2000에서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
(4)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최종 선정된 표본의 수는 2,941개이며, 이중 CSR을 수행한 기업은 855개이며, CSR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2,086개이다. 전체 표본의 업종별 분포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업종별 분포도

업 종	CSR 기업	비CSR 기업
농업/임업, 어업,광업	3	17
음/식료, 담배	26	143
섬유,봉제, 가방/신발	35	84
목재, 펄프/종이, 출판	31	70
식유정제, 화학, 고무/플라스틱, 재생용 가공원료	170	257
비금속	33	61
1차금속, 조립금속	71	183
기계 · 장비, 컴퓨터, 전기기계, 전자부품, 의료/정밀, 자동차, 운송장비	299	505
가구/기타제품	11	24
전기, 가스, 수도	8	37
건설	11	140
도소매	50	216
서비스업	85	270
그 외	22	79
합 계	855	2,086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판매관리비 변화율(△*SGA*)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0.020과 0.036이며, 매출액 변화율(△*Sales*)의 평균값과 중위수는 각각 -0.014와 0.005으로 보고되었다.

기업의 CSR의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CSR*의 평균값은 0.291이며, 전체표본의 약 29.1%의 기업이 CSR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매출액감소를 나타내는 더비변수인 *DD*의 평균값은 0.469로서 전체표본에서 매출액 감소가 46.9%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결과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Q1	Med.	Q3	Std. dev.
△SGA	0.020	−0.039	0.036	0.110	0.337
△Sales	−0.014	−0.074	0.005	0.077	0.351
CSR	0.291	0.000	0.000	1.000	0.454
DD	0.469	0.000	0.000	1.000	0.499
Size	19.906	18.900	19.679	20.703	1.491
Asset	0.271	−0.127	0.188	0.550	0.680
Lev	2.936	2.879	2.930	2.989	0.090
ROA	0.012	0.001	0.024	0.052	0.089
Big	0.662	0.000	1.000	1.000	0.473
Grow	2.761	2.600	2.700	2.900	0.330

2.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표 3]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결과 이다. 판매관리비 변화율(△*SGA*)은 매출액 변화율(△*Sales*), CSR유무(*CSR*),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된 반면, 총자산(*Asset*), 총자산순이익률(*ROA*), 국가경제성장률(*Grow*)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Var.	△SGA	△Sales	CSR	Size	Asset	Lev	ROA	Big
△Sales	0.660							
	(0.000)							
CSR	0.051	0.017						
	(0.005)	(0.362)						
Size	0.039	0.020	−0.002					
	(0.032)	(0.286)	(0.912)					
Asset	−0.204	−0.311	−0.108	0.011				
	(0.000)	(0.000)	(0.000)	(0.567)				
Lev	0.057	0.057	−0.052	0.927	−0.130			
	(0.002)	(0.002)	(0.005)	(0.000)	(0.000)			
ROA	−0.040	0.105	0.224	0.150	−0.140	0.037		
	(0.032)	(0.000)	(0.000)	(0.000)	(0.000)	(0.042)		
Big	0.019	−0.003	0.052	0.462	−0.068	0.437	0.084	
	(0.315)	(0.863)	(0.005)	(0.000)	(0.000)	(0.000)	(0.000)	
Grow	−0.069	−0.038	0.023	0.002	0.018	0.000	−0.016	−0.016
	(0.000)	(0.042)	(0.217)	(0.927)	(0.321)	(0.986)	(0.394)	(0.377)

Note: 괄호는 P값을 의미

판매관리비 변화율(△*SGA*)과 기업의 CSR유무(*CSR*)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의 증감에 따라 기업의 CSR유무도 동일한 방향으로 증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다중회귀분석

[표 4]는 기업의 CSR이 기업의 판매관리비의 원가행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관측치 수는 총 2,941이며,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를 포함시킴으로서 연도별 및 산업별 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GA*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0.020	(0.79)
△*Sales*	0.572 ***	(18.68)
△*Sales*DD*	−1.686 ***	(−2.56)
△*Sales*DD*CSR*	−0.316 ***	(−7.10)
△*Sales*DD*Size*	−0.149 ***	(−4.83)
△*Sales*DD*Asset*	0.001	(0.05)
△*Sales*DD*Lev*	1.601 ***	(4.55)
△*Sales*DD*ROA*	1.668 ***	(12.78)
△*Sales*DD*Big*	−0.068 *	(−1.70)
△*Sales*DD*Grow*	0.042	(0.95)
Year Dummy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Adjust R-square	0.5905	
F-Value	164.06	
# of observation	2,941	

*Note: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의미*

매출액 변화율(△*Sales*)은 판매관리비 변화율(△*SGA*)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작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의 매출액 변화율(△*Sales*DD*)과 판매관리비 변화율(△*SGA*)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작년대비 매출성과가 감소한 경우의 판매관리비의 감소율이 매출성과가 증가한 경우의 판매관리비의 증가율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의 매출액 변화율에 기업의 CSR유무를 반영한 변수인 △*Sales*DD*CSR*은 판매관리비 변화율(△*SGA*)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SR을 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더욱 강하게 나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즉, CSR을 수행하는 기업은 CSR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매출액 감소 시, 매출감소 대비 원가감소를 덜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추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에 따른 기업의 원가행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Homburg and Nasev(2008)의 하방경직성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하방경직성 추정치인 *Hn_sticky*의 측정방법은 다음 식(2)과 같다[21].

$$Hn_sticky_{i,t} = Cost_R_{i,t} * Sales_{i,t}_D * Cost_{i,t}_D \quad (2)$$

여기서,

$Cost_R_{i,t}$ = $(Cost_{i,t}/Sales_{i,t})-(Cost_{i,t-1}/Sales_{i,t-1})$

$Sales_D_{i,t}$ = *i*기업의 *t*기 작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면 1인 더미변수

$Cost_D_{i,t}$ = $Cost_R_{i,t}$이 0보다 크면 1인 더미변수

$Cost_{i,t}$ = *i*기업의 *t*기 매출액과 계속사업이익의 차, (매출액-계속사업이익)

Homburg and Nasev(2008)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전기 대비 당기의 매출액 감소 시 원가의 비율증가로 측정하였으며, *Hn_sticky*의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하방경직성이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Hn_sticky*의 값이 양(+)인 경우 *Hn_D*는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3)을 설정하였다.

$$Hn_d_{i,t} = \beta_0 + \beta_1 CSR_{i,t} + \beta_2 Size_{i,t} + \beta_3 Asset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Big4_{i,t} + \beta_7 Grow_{i,t} + \beta_8 DD + YD + ID + \varepsilon \quad (3)$$

여기서,

Hn_d = *i*기업의 *t*기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면 1인 더미변수
CSR = *t*기 CSR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1인 더미변수
Size = *i*기업의 *t*기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값)
Assets = *i*기업의 *t*기 자산집중도(총자산/총매출)
Lev = *i*기업의 *t*기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 *i*기업의 *t*기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Big4 = *i*기업의 *t*기 대형회계법인을 고용한 경우 1인 더미변수
Grow = *i*기업의 *t*기 국가경제성장률
DD = *i*기업의 *t*기 작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면 1인 더미변수
YD = 연도더미
ID = 산업더미

[표 5]의 추가분석결과 *CSR*와 *Hn_sticky*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값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CSR을 하는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원가의 하방경직적인 형태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추가분석의 결과도 앞선 본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지지함이 확인되었다.

표 5. 추가분석 결과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n_d*	
	Coefficient	t-value
Intercept	2.21	(0.14)
CSR	0.70 ***	(25.53)
Size	0.48 ***	(15.76)
Asset	0.03	(0.09)
Lev	-5.65 ***	(8.53)
ROA	-9.62 ***	(113.94)
Big	-0.15	(1.24)
Grow	-0.11	(0.00)
DD	5.55 ***	(267.44)
Year Dummy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Chi-square	1310.96	
# of observation	2,941	

*Note: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의미*

V. 결 론

본 연구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CSR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기업의 매출증가에 따른 원가증가율보다 매출감소에 따른 원가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경영자의 조정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CSR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CSR을 위한 자원투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정비용을 덜 줄이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CSR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욱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관련 비용을 낮추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원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CSR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학계와 자본시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된다.

참 고 문 헌

[1] E. Noreen, “Conditions under which Activity-based Cost Systems Provide Relevant Cost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3, pp.159-168, Fall, 1991.

[2] M. C. Anderson, R. D. Banker, and S. N. Janakiraman, “Are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Stick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1, No.1 pp.47-63, 2003.

[3] R. Balakrishnan, M. J. Peterson, and N. S. Soderstron, “Does Capacity Utilization Affect the “Stickiness” of Cost?,”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Vol.19, No.3 pp.283-299, 2004.

[4] 서주환, “기업가 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영성과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426-433, 2016.

[5] 박승배, 허종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395-402. 2011.

[6] 구정호, “기업지배구조가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영자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지분율을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제11권, 제1호, pp.1-35, 2011.

[7] 이미영, 홍영은, 박종국, “원가하방경직성의 신호효과와 노동조합,” 세무회계연구, 제46권, pp.1-18, 2015.

[8] 이용규, 한경찬, “원가의 행태와 경영자 유형,” 관

리회계연구, 제5권, 제2호, pp.1-23, 2005.
[9] 정형록, "한국제조기업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pp.1-28, 2007.
[10] 이용구, 남천현, "이익-보상 관계와 원가의 비대칭성," 관리회계연구, 제10권, 제1호, pp.191-214, 2010.
[11] 구정호, "이익조정 유인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적자회피 및 이익유연화, Big-Bath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6권, 제1호, pp.135-177, 2011.
[12] 조현우, 박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성과에 대한 임원보수의 민감도," 회계정보연구, 제35권, 제2호, pp.89-113, 2017.
[13] 배정호, 박현숙, "중소기업 조직역량이 CSR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 및 반응적 CSR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274-289, 2017.
[14] K. Calleja, M. Steliaros, and D. C. Thomas, "A Note on Cost Stickiness: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17, pp.127-140, 2006.
[15] D. Baron, "Private Polit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tegrated Strategy," Journal of Economics & Mangement Strategy, Vol.10, No.1 pp.7-45, 2001.
[16] M. Bagnoli and S. G. Watts, "Selling to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s: Competition and the Private Provision of Pubic Good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Vol.12, No.3, pp.419-445, 2003.
[17] E. F. Goldreyer and D. Diltz, "The Performance of Socially Responsible Mutual Fund: Incorporating Socioplitical Information in Portfolio Selection," Managerial Finance, Vol.25, No.1, pp.23-36, 1999.
[18] 김용성, 허영빈, 고성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3호, pp.33-57, 2010.
[19] 이윤상, "지속가능보고서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4호, pp.111-132, 2013.
[20] 최현정, 문두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회계투명성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8권, 제1호, pp.135-171, 2013.
[21] A. Habib and M. M. Has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st Stickiness," Business & Society, pp.1-40, 2016.
[22] C. Homburg and J. Nasev, "How Timely are Earnings When Costs are Sticky? Implications for the Kink Between Conditional Conservatism and Cost Stickiness," Working Paper, 2008.

저 자 소 개

이 창 섭(Chang Seop Rhee) 정회원

- 2007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계학 학사
- 2008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계학 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 2015년 3월 ~ 현재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재무회계, 관리회계, 콘텐츠경영, 융합교육

우 소 희(Sohee Woo) 정회원

- 2006년 12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계학 학사
- 2010년 5월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회계학 석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회계학)
- 2016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앤디컷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재무회계, 관리회계, 감사, 융합교육